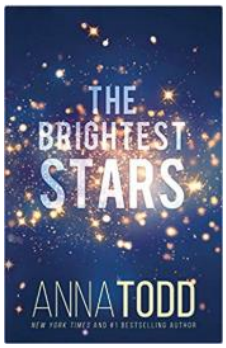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THE BRIGHTEST STARS
가제 : 가장 빛나는 별
저자 : Anna Todd
출판사: Frayed Pages, Inc.
발행일: 2018년 9월 18일
분량 : 306 페이지
장르 : 로맨스소설



*** 미국에 이어 독일, 프랑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루마니아, 덴마크, 스페인에서 출간 - 독일, 이탈리아 베스트셀러 / 브라질, 폴란드 출간 예정**

***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After』 시리즈의 작가가 시작한 새로운 시리즈 첫 번째 이야기**

이제 스무 살, 한창 밝은 미래를 꿈꿔야 할 나이에 카리나가 가장 바라는 건 평온함과 안정, 조용한 생활이다. 무리해서 작은 집을 따로 얻고 열심히 일에만 매진하려고 애쓰는 것도, 그렇지 않고서는 잠시도 가만히 두지 않는 가족들과 어두운 기억들이 자꾸 머릿속을 다 채워버리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군인이라 아주 어릴 때부터 미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사를 하는 동안, 줄곧 바뀌는 생활 환경과 달리 도저히 바뀌지 않는 것이 있었다. 고압적이고 엄격한 아버지의 태도와 그런 아버지 때문에, 그리고 군인 가족의 삶에 늘 힘들어하던 엄마였다. 엄마는 카리나와 쌍둥이 남동생 오스틴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고, 결국 영원히 사라졌다. 이 지긋지긋한 생활에서 꼭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빨리 일자리를 얻고 독립할 기회만을 생각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카리나와 달리 오스틴은 성인이 되어도 성장하지 못했다. 해야 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너무 뚜렷하고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불호령을 내리는 아버지를 피해 한심한 장난과 자잘한 사고나 치면서 하루하루를 흘려 보낼 뿐이었다. 그 사이 아버지는 카리나로써는 도저히 정을 줄 수 없는 새엄마와 재혼을 해서 다시 단란한 가정을 만들어보려고 자꾸 무리한 노력을 했다. 독립한 카리나에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집에 와서 저녁을 먹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도 그런 의미였다. 가장 벗어나고 싶던 곳에서 어느 정도 빠져 나왔지만 완전히 끊을 수 없는 가족이라는 존재가 더 견디지 못할 만큼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카리나에게 새로운 빛이 찾아왔다. 마사지를 받으러 온 손님으로 처음 만난 카엘이라는 군인이었다.

함께 일하는 동료이자 절친한 친구인 엘로디가 임신을 해서 지각하는 일이 잦아지자 사장 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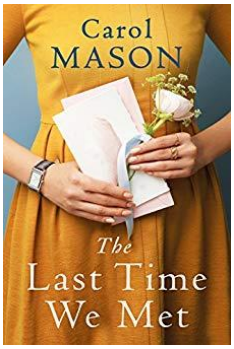
밖에 나지 않도록 카리나가 엘로디의 손님을 대신 받는 경우가 늘어났다. 카엘도 그렇게 만난 손님이었다. 헤어스타일이며 복장이 영락없는 군인인 그는 처음부터 군 부대가 있는 동네에서 일하면서 카리나가 그 동안 숱하게 접한 어떤 군인과도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근육이 뭉치고 몸 곳곳에 상처가 많은 군인들은 한 시간 남짓한 마사지가 이어지면 꽉 뭉쳐있던 긴장이 풀리면서 통증을 느끼거나 시원함을 느껴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내곤 하는데, 카엘은 단 한 번도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않았다. 다리 한 쪽은 아예 건드리지 말라고도 했다. 마사지를 시작할 때나 다 끝난 후에도 흔한 인사말 한 마디 하지 않고 사라진 그가 그로부터 단 몇 주 만에 카리나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 것이란 걸 그 순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알고보니 엘로디의 남편과 친한 친구인 카엘은 두 차례나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다녀왔다는 것을 카리나는 뒤늦게 알게 된다. 확실한 건 파병 기간 동안 그곳에서 끔찍한 일을 겪었고, 카엘이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린다는 사실이었다. 트라우마는 몸 전체에도 힘을 뻗쳐 외상이 없어도 온 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욱신거리는 통증에 시달리는 날도 많았다. 카리나는 엘로디를 통해 그의 이야기를 조금씩 전해 들으면서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이 컸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큰 상처 속에서도 어떻게든 견디려 애쓰는 그의 우직하고 조용한 노력이 카리나에게도 안정감을 주기 시작했다. 그는 매주 가족을 만나러 갈 때마다 속에 폭풍이 휘몰아치는 것처럼 괴로워하는 카리나의 상황을 말 없이 알아보고, 조용히 곁에서 힘이 되어주었다. 우연히 함께 차를 타고 아버지 집까지 갔던 날, 집 앞에서 또 난동을 피우는 오스틴을 꽉 붙들어서 진정시킨 일도 있었다. 무거운 삶을 견뎌보려고 발버둥치는 서로를 그렇게 알아본 두 사람은 자연스레 서로에게 깊이 빠져든다. 카리나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무언가에 강렬하게 중독된 것 같은 마음으로 카엘이 퍼붓는 사랑에 매달린다. 하지만 이제 겨우 채워진 것 같은 삶은 시작처럼 너무 빠른 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번에도 가족과 엮인 문제였다.

오스틴이 정신을 못 차리고 제대로 된 일자리는 구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술집에서 싸움을 벌이기나 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자 아버지와의 갈등도 점점 깊어졌다. 급기야 더 이상 십대 청소년이 아닌 오스틴은 아버지에게 본격적으로 대들기 시작하고, 카리나는 껍질뿐인 가족이라는 울타리나마 무너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써 온 그 동안의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느끼며 절망한다. 그런데 급기야 오스틴이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른 날, 카리나는 카엘이 몰래 오스틴과 절친한 친구가 되었고 의지할 곳 없이 방황하던 동생이 그를 유일한 버팀목으로 삼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버지 집에서 나와 그의 집에 잠시 머무르게 됐다는 오스틴의 말에 카리나는 당황스러웠지만, 일자리까지 구했다고 하자 반가운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카리나는 동생이 말한 일자리가 바로 자원입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모든 일을 카엘이 계획한 것일까? 그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저자 소개>

애나 토드(Anna Todd)는 2014년 출간 후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1,000만 부 이상 판매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After』 시리즈와 『The Spring Girls』 등을 쓴 작가다.



제목 : THE LAST TIME WE MET
가제 : 재회
저자 : Carol Mason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2018년 10월 16일
분량 : 302 페이지
장르 : 영미소설일반

*** 수십 만 달러 규모로 출판계약 체결**
*** "참신함과 날카로운 생동감이 느껴지는 뛰어난 데뷔소설" - 데뷔작 『The Secrets of Married Women』에 대한 「파이낸셜 타임스」 서평**

결혼 10주년을 맞아 남편과 모처럼 둘만의 오붓한 데이트를 즐기던 날, 셀린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던 '우연한 만남'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임을 깨달았다. 그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생활방식이나 동선이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어쩌다 예상치 못한 시간에 마주치는 것일 뿐 뭐 그렇게 대단한 우연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날 셀린이 패트릭을 발견한 곳은 길을 잘못 들지만 않았어도 절대 지나가지 않았을 장소였기에 극적인 만남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다. 15년 만에 갑자기 낯선 거리에 나타난 패트릭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두툼한 코트 차림에 어두운 가로등 불빛이 전부였지만 셀린은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몸도 생각도 의지와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어떤 건물에서 나와 택시를 향해 손을 뻗는 패트릭을 멍하니 응시하던 셀린은 그를 태운 택시가 움직이자 영문을 모른 채 서 있는 남편 마이크를 버려둔 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쫓아갔다. 패트릭이 맞는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좁은 거리가 도로와 만나는 곳에서 신호를 받고 서 있는 택시를 향해 가려다 달려온 차량에 막혀 어쩔 수 없이 발을 멈춘 셀린은 그제야 절망으로 일그러진 마이크의 얼굴을 보았다.

패트릭은 15년 전 셀린이 세계 곳곳을 여행 다닐 때 베트남에서 만난 사람이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날, 비를 피해 아무 곳에나 들어간 어느 커피숍에서 빈 자리가 없어 의자가 하나 남아 있던 테이블에 합석했는데 맞은편에 그가 있었다. 카메라를 들고 뭔가 이것저것 만지느라 맞은편 여자에게 별로 관심이 없던 그에게 왠지 호감을 느낀 셀린은 용기를 내어 먼저 말을 걸었다. 하지만 예의 바른 형식적인 인사 몇 마디로 대화는 끝이 났고, 그는 얼마 남지 않은 맥주잔을 비우자마자 먼저 일어섰다.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며칠 뒤 셀린은 하롱베이 투어가 기상악화로 취소된 바람에 충동적으로 찾아간 러브마켓이라는 곳에서 그와 다시 마주쳤다. 이번에는 그가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왔다. 지역 주민들이 손으로 만든 장신구와 소품을 파는 곳에서 이것저것 구경하던 셀린을 발견한 패트릭은 바가지 쓰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한다고 말을 걸더니, 마치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자연스럽게 셀린의 손을 붙잡았다. 캐나다 출신의 저널리스트, 홍콩에서 일하고 있으며 몇 주 전 베트남에 취재차 왔다가 잠깐 여행 중이라는 설명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러브마켓이 아주 오래 전 집안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두 남녀가 남의 눈을 피해 만날 수 있었던 유일한 곳이었다는 설명과 함께 가이드처럼 셀린을 여러 곳으로 이끌었다. 셀린은 그를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낀 깊은 호감이 착각이 아니었음을 재확인한다. 위트 넘치는 언변과 진지하고 따뜻한 눈빛에 매료된 셀린은 그에게 푹 빠져들지만, 평생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뜨거운 감정은 단 4일 만에 끝이 나고 만다. 불장난처럼 끝난 패트릭과의 사랑은 셀린에게 큰 상처와 함께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것 같은 아쉬움을 남겼다. 그 감정은 이후에도 내내 사라지지 않았고, 가끔 선명하게 떠올라 셀린을 사로잡곤 했다. 결혼을 하고 누구에게나 자랑할 법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였다.

남편 마이크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상하고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다. 딸 에이미에게도 친구처럼 좋은 아빠일 뿐만 아니라 10년을 함께 살고도 셀린을 늘 변함없이 애정이 넘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뭐든 다 해주려고 노력했다. 10주년을 맞아 3천 파운드나 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서 끼워주고, 한사코 거절하는 셀린에게 '당신의 가치는 이런 금액으로 매길 수가 없어'라는 낯간지러운 멘트도 날릴 줄 아는 로맨틱한 남자였다. 셀린은 마이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결혼생활에도 아무런 불만이 없었지만 패트릭에게 느꼈던, 몸과 마음이 다 타서 없어질 것만 같은 강렬한 감정은 느낄 수 없었다. 하지만 당연히 내색하지 않았고 현실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패트릭이 나타난 것이다. 무엇보다 그가 왜 캐나다도 홍콩도 아닌 영국에 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혹시 잘못 본 걸까? 하지만 셀린이 패트릭을 태운 택시를 따라 숨이 턱에 닿도록 달려간 이상, 그가 패트릭이 맞는지 아닌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마이크는 아내에게 들은 적 있는 첫사랑이 그저 과거의 해프닝이기만을 바랐지만 이렇게 크고 짙은 유령이 되어 여전히 아내 곁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흔들림 없던 두 사람의 관계는 그 때부터 삐걱대기 시작하고, 결국 마이크는 이혼을 결심한다.

다른 여자들이었다면 외도를 한 것도 아닌데 굳이 이혼을 해야겠느냐고 따질 수도 있었겠지만, 셀린은 마음 속에서 패트릭을 지우지 못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에 마이크의 결심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3년의 시간이 흐르고, 사춘기에 들어선 딸 에이미가 세상에 둘도 없는 아빠를 잃게 만든 건 엄마 탓이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셀린은 홀로서기에 어느 정도 성공한다. 런던 북부에 데이트 주선 업체를 세우고 자리를 잡은 어느 날, 놀랍게도 패트릭이 보낸 이메일이 도착한다. 그 긴 세월을 무슨 감정인지도 확신하지 못하고 붙잡고만 있던 사람은 셀린 혼자만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두 사람은 다시 만나기로 한다. 그러나 마이크가 셀린의 회사를 찾아와 새 짝을 찾아달라고 의뢰하면서 셀린의 마음은 다시 요동친다. 어쩌면 다시 없을 두 번째 기회를 붙잡아야 하는 사람, 진정한 사랑은 누구일까?

<저자 소개>

캐롤 메이슨(Carol Mason)은 모델, 광고회사 카피라이터로 일하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다. 『The Love Market』, 『After You Left』, 『Send Me A Lover』, 『The Secrets of Married Women』 등이 있으며 현재까지 발표한 소설은 1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됐다.

제목 : THE STRANGER INSIDE
가제 : 침입자
저자 : Laura Benedict
출판사: Mulholland Books
발행일: 2019년 2월 5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심리스릴러소설

* 독일 pre-empt 판권 계약 / 에드가 상, ITW 스릴러 상 후보로 선정된 작가의 신작
* "작가 특유의 글 솜씨가 돋보이는 우아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미스터리 소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Lie to Me』 의 작가 J.T. 엘리슨
* "복잡하게 얽힌 과거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능숙한 솜씨로 그린 스릴러" - 「USA 투데이」 베스트셀러 『Somebody's Daughter』의 작가 데이빗 벨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느라 어떻게 흘러갔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는 4일이 지나고 날이 저물기 시작할 무렵 집에 돌아온 킴버는 현관문을 열려다가 열쇠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나? 차고 열쇠나 다른 열쇠를 끼웠나 보다, 라는 생각으로 얼른 정신을 가다듬은 킴버는 손에 쥔 것이 분명히 현관문 열쇠라는 것을 다시 확인한다. 하지만 열쇠구멍에 맞지 않았다.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 식은땀이 나기 시작한 킴버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나 멍하니 집을 바라본다. 고급스러운 2층 주택, 큰 창문 안으로 보이는 부엌의 모습과 익숙한 발코니, 집을 잘못 찾아온 것도 아니다. 문득 집 뒤편에 이사온 날 이후로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지하실과 연결된 문을 떠올린 킴버는 서둘러 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열쇠꾸러미 속에서 그 뒷문 열쇠를 찾아내서 얼른 끼워보지만 소용없다. 그 때, 킴버의 눈에 놀라운 광경이 들어온다. 집 뒤편에 낯선 자전거가 한 대 세워져 있고 핸들에 기름때가 잔뜩 묻은 수건이 하나 걸려 있는데, 분명 킴버가 여행가기 전에 말끔히 세탁해서 욕실 선반에 개어둔 세수 수건이었다! 화가 치미는 순간, 어둑한 집 안쪽에서 시커먼 형체가 나타난다. 재빨리 2층 쪽으로 사라진 그림자를 똑똑히 본 킴버는 집안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문을 두드리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않는다. 소란을 감지하고 집 밖으로 나온 옆집 할머니는 킴버에게 더욱 더 경악할 만한 이야기를 했다. 킴버가 떠난 바로 다음 날 '아주 착하고 순한' 청년이 이삿짐을 들고 집에 들어왔으며, 할머니에게 6개월간 이 집을 빌리기로 했다며 예의 바르게 인사도 했다는 것이다. 임대라니? 처음 듣는 소리였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내 들고 경찰에 신고부터 한 뒤, 킴버는 또 한 사람을 떠올린다. 전 남자친구이자 유능한 변호사인 가브리엘이었다.

자신의 잘못으로 썩 아름답지 않게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 보통 사람 같으면 망설일 일이겠지만 킴버는 그런 부류가 아니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손에 넣는 사람,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악바리라는 주변 사람들과 동료들의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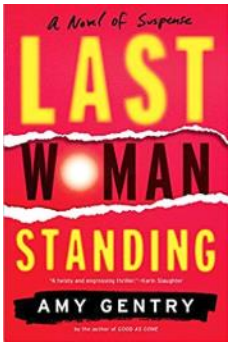
러움과 시기, 비난이 섞인 평가는 킴버가 어떻게 이토록 젊은 나이에 이렇게 번듯한 집을 장만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역시 예상대로 가브리엘은 상황을 대충 듣자마자 10분 내로 가겠다고 대답한다. 잠시 후 경찰도 도착하지만, 딱딱하게 굳은 험악한 얼굴의 경찰은 킴버의 호소를 다 믿지 않는 눈치였다. 경찰이 초인종을 누르자 좀 전에 그림자로만 본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랜스 윌슨이라는 이름의 생전 처음 보는 이 남자는 옆집 할머니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면서 계약서를 꺼내 보였다. 경찰이 받아 든 계약서를 본 킴버는 기겁한다. 임대인 성명에 자신의 이름과 누군가 조작한 서명까지 떡 하니 기입되어 있었다. 이런 계약서는 쓴 적도 없다며 킴버는 열심히 설명하지만 경찰은 일단 서류가 확인된 이상 랜스 윌슨이 정말로 가택 침입자인지, 킴버가 사기꾼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랜스 윌슨은 계약 당시 만난 집주인이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킴버와 '아주 많이 닮았다'며 아리송한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그의 '내가 알 바 아니다'라는 식의 여유 있는 태도와 실실 웃는 얼굴에 약이 오를 대로 오른 킴버는 순간 미친 듯이 화가 치밀어 그를 주먹으로 치고 만다. 폭행을 휘둘렀다며 당장 체포할 수도 있다고 경찰이 으름장을 놓는 사이, 랜스 윌슨은 아무도 듣지 않을 때 킴버의 귀에 속삭인다. "그래, 넌 항상 이런 식이지. 이 못된 여자야, 내가 다 봤어,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25년 전, 끔찍한 사고로 세상을 떠난 언니 미셸은 킴버의 기억에서 평생 지워지지 않을 비밀이 되었고 이혼한 남편은 물론 바로 근처에 사는 가장 친한 친구 다이애나나 한 때 연인이었던 가브리엘까지 그 누구에게도 그 날의 비밀은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집 열쇠를 다 바꾸고 제 집인 양 차지하고 앉은 낯선 사람이 그 일을 알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 것이다. 이 일이 그저 돈이나 집을 노리고 벌어진 것이 아님을 깨달은 킴버는 이제 무단 침입자뿐만이 아닌, 아주 오랫동안 자신을 잠식해온 과거의 그림자와 대면해야만 한다는 것을 직감한다.

가브리엘은 지인까지 모두 동원하며 적극적으로 돕고 다이애나는 오갈 곳이 없어진 킴버가 자신의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준다. 그런데 가브리엘의 조사로 킴버가 아예 잊고 있던 이름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오른다. 케빈,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이복 남매로 미셸 언니까지 다 함께 한 집에 살았던 적이 있는 아이였다. 그가 이 동네에 왜 나타났을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킴버에게 남긴 재산, 특히 이 집을 가로채려는 교묘한 수작일까? 그의 정체와 의도를 파헤치기 시작한 킴버는 언니 사건 하나가 아닌, 그 동안 저지른 수많은 과오가 한꺼번에 자신을 덮치고 복수하려 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모두 킴버의 부정직한 일들을 알고 있다는 것, 가브리엘과 케빈의 수상한 관계가 서서히 밝혀지고, 킴버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언니를 죽인 진범은 누구일까? 마지막 페이지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로라 베네딕트(Laura Benedict)는 『The Abandoned Heart』, 『Charlotte's Story, Bliss House』 등 여러 편의 소설을 발표한 작가로 엘러리 퀸 미스터리 매거진, NPR 등 다양한 매체에 단편소설도 기고해 왔다. 소설 『A Paler Shade of Death』로 에드가 상 후보에 올랐으며 ITW 스릴러 상 후보로도 지명됐다.



제목 : LAST WOMAN STANDING
가제 : 무대 위에서
저자 : Amy Gentry
출판사: Houghton Mifflin Harcourt
발행일: 2019년 1월 15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서스펜스소설

* "여성들의 분노, 스탠드업 코미디, 하이스미스를 향한 오마주가 담긴 이 소설은 2019년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서스펜스 소설이 될 것" - 『The Real Lolita』의 작가 새라 웨인먼
* "오랫동안 경시되어 온 미국의 성폭행 문화에 폭발적인 대답을 들려주는 복수 스릴러. 기술, 어플리케이션, 연예산업, 소셜미디어 등 현대사회의 도구를 모두 활용하여 희생자가 자경단원처럼 행동하게 되는 세상을 보여준다" - 『Everything You Want Me to Be』의 작가 민디 메지아

LA에서 나고 자란 다나가 텍사스 주 오스틴으로 훌쩍 생활 터전을 옮기고 새 출발을 결심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성공하기 위해 연기 공부를 하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짧게는 10분, 길어봐야 20분 정도 무대에 설 수 있는 자리를 찾아 다니는 불안정한 생활을 그나마 지탱해주던 레스토랑 아르바이트가 너무 지긋지긋했고, 생계 유지도 힘든데 집 임대료는 자꾸 오르기만 했기 때문이었다. 익숙해서 어쩌면 이를 악물고 견딜 수 있었을지도 모를 이런 상황 외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다. 다나는 유일한 친구이자 가장 오래된 친구 제이슨에게 딱 5년만 바람 쐬듯 오스틴에서 살아보고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후 이곳으로 왔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그럴싸한 성과는 없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이 되면 무대에 올라 반쯤 술에 취한 관객들을 어떻게든 웃기려고 애쓰는 건 LA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 좋지 않았다. 개그 감각이 떨어진 것인지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지, 관객들도 다나 스스로도 공연에 썩 만족하지 못하고 민망하게 무대에서 내려오는 날이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다나가 공연을 하는 곳은 저녁마다 대여섯 명의 스탠드업 코미디언들이 순서대로 무대에 올라 준비해온 개그를 선보이는 곳이라 공연 전, 혹은 공연 후 술 한잔 기울이고 있으면 자신의 무대와는 사뭇 다른 호응과 박수소리를 그대로 들을 수 있었다. 그래도 다나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엄마는 어릴 때 떠나버린 아빠가 유머 감각을 물려준 것 같다고 이야기하곤 했고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나는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리며 환하게 웃게끔 만드는 일이 마냥 좋았다. 다시 LA에 돌아가려 해도 이렇게 빈손으로 처량하게 돌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나날이 힘이 빠지던 어느 날, 다나는 생전 처음으로 제이슨 외에 또 한 명의 친구를 사귄다. 관객으로 만난 아만다였다.

여자 아이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하고 남자아이들 관심을 얻는 일에 푹 빠져 있을 때도 다나는 그런 일에는 영 흥미가 없고 어떻게 하면 기가 막힌 개그를 칠 수 있을까 고민했기에 학창 시절부터 딱히 가까운 친구가 없었다. 아이들은 실없는 소리나 하는 다나를 늘 비웃고 이상한 아이

라고 생각했다. 그 때 유일하게 그런 다나를 덤덤하게 받아주고 불쑥 엉뚱한 농담을 던져 다나를 깔깔 웃게 만든 친구가 제이슨이었다. 무대에 올라 유난히 관객들의 반응이 싸늘할 때는 그 중에서 가장 호응이 좋은 한 사람을 찾아내서 오직 그 사람 얼굴만 보며 공연을 끝까지 잘 마쳐야 한다고 조언해준 사람도 제이슨이었다. 도를 넘은 성적 농담까지 던지는 취객까지 앉아 있는데 유난히 개그가 풀리지 않던 어느 날, 다나는 당장 무대에서 뛰어내려가고 싶은 마음을 추스리고 제이슨의 이 조언을 떠올린다. 그 때 맨 뒷좌석에서 환한 미소와 함께 다나가 하는 모든 말에 고개를 열심히 끄덕이는 여자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그 고마운 관객을 보며 준비해온 공연을 겨우 무사히 마친 다나는 아만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관객과 금세 친해진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실리콘밸리의 유명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배우 지망생이 됐다는 아만다는 남자들이 주도권을 꽉 틀어쥔 분야에서 실력과 상관없이 괄시당하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것에 아주 불만이 많았다. 스탠드업 코미디도 철저히 남성중심적이고 여자들은 큰 무대나 방송에 출연할 기회도 거의 없다는 사실을 그간 온몸으로 느낀 다나는 아만다의 분노에 공감한다. 하지만 아만다가 끓어오른 분노를 복수로 되갚아줄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다나는 곤경에 빠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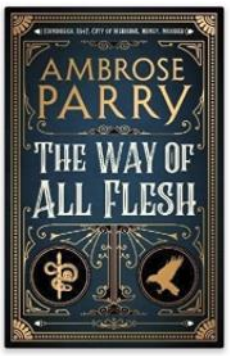
'올해 가장 웃긴 코미디언'을 뽑는 연례 행사에 다나가 도전장을 내밀면서 모든 일이 시작됐다. 막대한 상금이 걸려 있어서 온 동네 모든 스탠드업 코미디언들이 일년 내내 고대하고 모두가 참가하는 이 중요한 행사에 예선을 보러 간 다나는 심사위원석을 보고 두 눈을 의심했다. 유명 코미디언, 애런 닐리가 떡 하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나가 LA를 떠나게 만든 장본인이었다.

아직 LA에 살던 몇 년 전 어느 날, 돈과 권력을 모두 가진 집에서 자란 제이슨은 모든 연줄과 인맥을 동원하여 친구 다나가 애런 닐리와 독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었다. 여자 코미디언을 찾아보기 힘든 업계에서 다나가 개그계 대선배로부터 유용한 팁도 얻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그처럼 성공할 수 있는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만든 자리였다. 하지만 닐리는 다나나 제이슨이 생각했던 것과는 영 딴판이었다. 예의도 없고, 여성 비하와 남미 출신인 다나의 피부색을 거론하며 인종차별 발언도 서슴지 않더니,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기 차 뒷좌석에 태우고는 입에 담지도 못한 더러운 행위로 다나를 모욕했다. 기겁한 다나는 화 한 마디 못 내고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서둘러 다른 도시로 도망쳐버렸다. 그 역겨운 인간이 심사위원으로 나타난 것이다. 아만다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은 다나는 며칠 뒤, 닐리가 심사위원을 포기하고 LA로 돌아갔으며 아만다가 자신을 위해 계획적으로 그 일을 해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란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만다가 그저 호의로만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며, 과거 자신에게 폭력을 가한 전 직장 상사에게 대신 복수해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요청한 적도 없는 복수를 또 다른 복수로 갚아달라는 이 부탁을 어쩔 수 없이 수락한 순간부터 다나의 삶은 점점 더 꼬이기 시작한다. 진지한 주제를 풍자, 유머로 풀어낸 기발한 스릴러다.

<저자 소개>

에이미 젠트리(Amy Gentry)는 시카고 대학교에서 영어 박사과정을 마치고 도서 리뷰어, 에세이 작가, 소설가로 활동해 왔다. 소설 『Good as Gone』은 「뉴욕타임스」 리뷰 '주목할 만한 책'으로 선정됐다.

추가 업데이트



제목 : THE WAY OF ALL FLESH
가제 : 수술용 메스
저자 : Ambrose Parry
출판사: Modtryk
발행일: 2018년 8월 30일
분량 : 448 페이지
장르 : 추리/미스터리소설

*** 스티그 라르손, 요 네스뵈, 필립 커가 책을 낸 Modtryk 출판사에서 출간!**
*** "특출나게 좋은 소설." - 「가디언」 / Canongate에서 pre-empted로 world rights 계약**
***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향수』가 떠오르는 책**

산통을 에테르 대신 클로로포름으로 잠재우는 방법을 처음 도입한 스코틀랜드의 산부인과 의사인 제임스 영 심슨 박사는 19세기 영국 의학계에 큰 변화를 일으킨 대표적인 인물이다. 심슨 박사의 집이자 진료실이 함께 붙어 있는 큰 집에서 하녀로 일하는 사라는 심슨 박사도 인정할 만큼 의학적인 지식이 상당해서 병원이 손님으로 북적일 때면 간단한 처치는 사라가 도맡아서 처리하곤 했다. 그러한 심슨 박사의 밑에 젊은 의학도 윌 레이븐이 견습생으로 들어온다. 사라는 견습생이라며 찾아온 윌 레이븐이 처음부터 못마땅했다. 어설프고 환자들도 제대로 다룰 줄 모르는 풋내기 의사 티가 줄줄 흐르는데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의학 교육을 아무렇지 않게 받고 훌륭한 의사 밑에서 훈련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윌 레이븐은 나름의 아픈 사정을 안고 견습 생활을 시작하고 있었다. 수년 전, 아직 새파랗게 어린 시절에 짓궂은 친구들 틈에서 예쁜 얼굴의 에비를 만나 사랑하게 되었다. 길거리를 전전하며 남자들을 유혹해 몸을 파는 여자인 애비는 나이가 많이 들어 보였지만 윌보다 한 살 어렸다. 열네 살부터 그런 일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윌도 처음에는 그녀의 '고객'이었지만 두 사람은 꽤 가까운 친구로 발전했고, 에비는 윌에게 힘든일을 털어놓으며 의지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돈을 빌려달라고 찾아왔고, 늘 에비가 안쓰러웠던 윌은 썩 적절치 않은 곳에서 돈을 빌려 에비에게 건네주었다. 윌은 에비가 그 돈을 누군가에게 주려고 빌린 것임을 직감했지만 자세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

그러나 심슨 박사 밑에서 일하기로 한 바로 전 날에, 에비가 죽은 채로 발견됐다. 자신의 집이자 '영업장'에서, 두 눈을 치켜 뜬 채로, 분명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흔적을 가득 남긴 채 에비는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다. 그 비극적인 현장에 우두커니 서 있을 때만 해도, 윌은 원인도 범인도 알 수 없이 강제로 목숨을 빼앗긴 젊은 여성들이 한둘이 아니며 앞으로 계속 생겨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최신 의학기술과 찌든 가난이 공존하던 도시, 1847년 에딘버러 - 그곳에서 일어난 연쇄살인

이 책은 세계적 베스트셀러 소설가와 의학사를 공부한 마취과 전문의의 합작품이며, Ambrose Parry는 필명이다. 19세기 에딘버러는 한 마디로 빛과 어둠이 두 얼굴처럼 존재하는 도시였다. 심슨 박사를 비롯해 열정 넘치는 의사들이 새로운 의술을 치료에 적극 사용하던 수준 높은 곳이면서도, 한편에서는 엄청난 가난, 비도덕과 폭력이 난무했다. 이 소설은 1847년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를 배경으로, 심슨 박사 밑에 견습생으로 들어온 젊은 의학도 윌 레이븐과, 하녀이지만 명석한 두뇌를 지닌 사라 피셔가 미스터리한 연쇄 살인사건을 파헤치는 과정을 그렸다. 곳곳에서 죽은 채 발견된 여성들과, 더 나은 치료법을 찾아 가는 과정에서의 실수와 아슬아슬함이 절묘하게 윌과 사라의 시선으로 독자들 앞에 펼쳐진다. 게다가 심슨 박사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외과 전문의인 제임스 사임과 형사인 제임스 맥레비 등 당시 에딘버러에서 활동했던 역사적 인물들이 다수 등장하며 이 범죄 소설에 생생함을 더한다.

서로가 영 달갑지 않았던 사라와 윌의 첫 만남은 뜻밖의 사건으로 급전환된다. 윌은 에비의 죽음으로, 사라는 개인적인 다른 이유로 에딘버러에서 연달아 발견된 이상한 여자 시체들과 얼굴 없는 살인자에 큰 관심을 갖게 되고 두 사람은 각자의 전문 지식을 발휘하여 함께 괴물을 찾으러 나선다. 그러나 영악한 살인자는 생각보다 아주 가까이, 언제든 두 사람을 해치울 수 있는 곳에 조용히 숨어 있었다. 의학적으로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초기 단계였기에 치료가 의도치 않은 화를 불러온 사례들도 많았던 시절, 변화와 연구에 대한 지나친 열정이 도덕적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기도 했던 19세기의 상황을 생생하게 반영한 이 소설은, 윌과 사라를 주인공으로 두 사람의 성장과정까지 아울러 그려낸다.

<저자 소개>

앰브로스 패리(Ambrose Parry)는 소설가 크리스 브룩마이어와 그의 아내이자 마취 전문의 마리사 해츠먼의 공동 집필한 책에 사용하는 필명이다. 크리스 브룩마이어(Chris Brookmyre)는 현재까지 스물한 권의 소설을 발표하여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에 오르고 여러 상을 수상했다. 특히 Black Widow는 틱스턴 올해의 범죄 소설 상(Theakstons Old Peculiar Crime Novel)과 맥일베니 스코틀랜드 올해의 범죄 소설 상(McIlvanney Prize for Scottish Crime Novel of the Year)을 동시에 수상했다. 마리사 해츠먼(Marisa Haetzman)은 20여 년간 마취과 상담의로 일했다. 석사 과정에서 공부한 의학사 지식이 이번 소설의 바탕이 되었다.

Praise for
THE WAY OF ALL FLESH
Ambrose Parry

'Pretty damn exceptional' **Irvine Welsh**

'It's a rip-roaring tale of murder amid the medical experiments of 19th-century Edinburgh. The book brings both city and period to colourful life and is a joy to read.' **Ian Rankin**, ***Guardian***, Best Summer Books
https://www.theguardian.com/books/2018/jul/07/summer-reading-writers-recommend-part-one-hilary-mantel-yuval-noah-harari-chimamanda-ngozi-adichie

'An excellent historical thriller, with delicious flashes of Brookmyre's salty humour . . . An authentically Victorian richness of character and incident, and the often squirm-inducing medical detail is fascinating' ***Daily Telegraph*** (attached)

'*The Way of All Flesh* is a treat. The historical setting is fascinating, and all of Brookmyre's wit and storytelling verve are evident in this tale of scalpels and secrets' ***The Times*** (attached)

'A thoroughly entertaining tale of murder and misadventure in 1840s Edinburgh' ***Sunday Times***

'*The Way Of All Flesh* is a fine tonic, and Ambrose Parry a welcome fresh voice' ***Scotland on Sunday***
https://www.scotsman.com/lifestyle/culture/books/book-review-the-way-of-all-flesh-by-ambrose-parry-1-4792310

'Raven and Sarah are intriguing characters. They are very different personalities but together they make a formidable team, much like Brookmyre and Haetzman, whose first collaboration in fiction is a resounding success' ***Hera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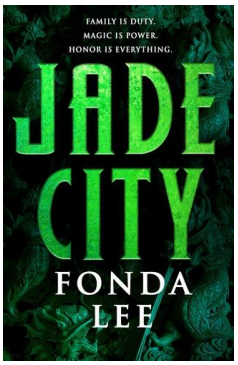
'The narrative style here involves a crisp Victorian tone, with characters who are bold and distinctive, and a thread of black humour woven throughout; the sense of an Edinburgh socially and geographically developing into the one we know now adds extra flavour to a foot-finding first instalment in what has the potential to become a series' ***List***
https://www.list.co.uk/article/103563-ambrose-parry-the-way-of-all-the-flesh/

'Makes for a compelling read . . . A refreshing addition to the historical crime genre' ***Skinny***
https://www.theskinny.co.uk/books/book-reviews/the-way-of-all-flesh-by-ambrose-parry

The ***Observer*** published an amazing interview of Christopher Brookmyre and Marisa Haetzman writing as **Ambrose Parry** by writing duo **Nicci French**:
https://www.theguardian.com/books/2018/aug/12/when-nicci-french-met-ambrose-parry-couples-who-write-together

Christopher Brookmyre and Marisa Haetzman were interviewed in the ***Daily Record*** about writing as **Ambrose Parry**:
https://www.dailyrecord.co.uk/scotland-now/scotlands-pioneering-invention-modern-anaesthetics-13132929

추가 업데이트



제목 : JADE CITY
가제 : 제이드 시티
저자 : Fonda Lee
출판사: Orbit
발행일: 2017년 11월 7일
분량 : 512 페이지
장르 : 판타지/범죄스릴러소설

* 네뷸라상 Best Novel 후보작!
* "전형적인 홍콩 갱스터 영화의 느낌이 판타지 소설 속 대도시와 결합되어 책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을 만큼 상상력으로 꽉 채워진 이야기다." - 휴고 상, 네뷸러 상, 월드 판타지 어워드 수상자, 『The Grace of Kings』의 작가 켄 리우
* "섬세하면서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판타지 범죄 소설을 넘어 더욱 특별한 소설이 된 이야기." - 휴고 상, 로커스 상 수상 작가 엘리자베스 베어

옥이 전사의 타고난 힘과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귀중한 에너지원으로 여겨지는 케콘 아일랜드와 이 특별한 섬의 중심 도시 잰룬을 무대로 한 두 집안의 뜨거운 격전이 판타지 소설과 화려한 액션의 요소가 결합된 박진감 넘치는 3부작 시리즈로 만들어진다.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완성된 '제이드 시티'는 시대가 변하면서 급격히 교체되기 시작한 도시의 문화만큼 세력 교체가 이루어지는 잰룬의 두 집안, '노 픽'과 '마운틴'의 구성원들을 주인공으로 이들의 오랜 갈등과 옥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대로 보여준다. YA SF 소설로 이름을 알린 작가는 20세기 홍콩을 떠올리게 하는 독특한 배경에서 펼쳐지는 운명의 대결을 무술 유단자답게 생생한 액션 장면들로 가득 채워 더욱 흥미진진하게 그린다.

옥이 전사의 힘을 북돋아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옥이 존재한다고 알려진 곳은 전부 파헤쳐지고, 정식으로든 암시장에서든 엄청난 값에 거래되고, 옥을 차지하기 위한 절도와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사람의 목숨마저 앗아가는 사태가 수 세기 동안 지속된 잰룬은 '그린 본' 전사들 덕분에 겨우 평화를 찾았다. 사람들은 옥만 소유하면 대단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에 불과하다. 명예로운 그린 본 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태어날 때부터 옥에서 발산되는 에너지를 그대로 흡수하고 이를 자신의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만 했다. 바로 그 유전자를 지닌 카울 센이 '노 피크' 부족의 수장을 맡으면서 옥을 쟁취하기 위한 무차별적인 갈등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뒤를 이어 새로운 수장이 된 카울 센의 아들, 카울 랜은 노 피크의 전설로 남은 부친만큼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섞인 존경을 얻어내지는 못했다. 단단히 결속되어 있던 조직 체계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것도 같은 이유였다. 이들처럼 타고난 전사

의 유전자를 지닌 또 다른 부족, '마운틴'은 카울 센의 권력으로 잰룬 시의 정치와 경제를 모조리 거머쥔 노 피크 부족의 기세에 어쩔 수 없이 짓눌려 있었지만 도시를 쟁탈하겠다는 야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부친보다 못한 아들, 카울 랜이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 노 피크 부족이 흔들리는 기미가 느껴지자마자 때를 기다리던 마운틴의 수장, 아이트 마다시는 마침내 본격적인 공격을 준비한다. 목표는 하나. 노 피크 부족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들이 움켜쥔 옥을 빼앗아 잰룬 시는 물론 케콘 섬 전체를 손 안에 넣는 것이다. 조상들이 힘겹게 만든 평화인 줄도 모르고 나태한 생활과 권력을 휘두르는 일에만 심취해 있던 노 피크의 차세대 젊은 전사들은 마운틴 부족의 공격과 맞닥뜨리자 쩔쩔 매며 허둥댄다. 그러나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는 일. 각자에게 주어진 전사의 기술을 적극 발휘하여 가족을 지켜내야만 한다.

카울 랜의 동생으로 스물일곱 젊은 나이에 도시의 수석 행정관 자리에 오른 카울 힐로는 다혈질에 충동적인 인물이지만 형을 도와 균열이 찾아온 조직 내부를 단단히 결속시키고 호시탐탐 옥을 훔치려는 외부 세력들을 쫓는 데 힘을 기울여 왔다. 특별한 유전자로만 만들어질 수 없는 진정한 그린 본 전사가 되기 위해 혹독한 훈련과 교육을 마친 젊은이들을 양성하는 일도 카울 힐로의 몫이었다. 그러나 시대는 분명 변화하고 있었다. 자동차, 텔레비전 같은 새로운 기계가 도시에 속속 유입되고 생전 처음 보는 음식들, 옷가지들, 문화가 잰룬 시민들의 일상에 파고들어 아버지 시대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노 피크 부족이 독점한 옥을 노리는 야심만만한 젊은이들의 시도 역시 그칠 줄 몰랐다. 신기술의 놀라운 힘을 제대로 활용하기로 한 마운틴 부족은 특별한 유전자가 없어도 누구나, 심지어 외국인까지도 옥의 신비한 능력을 이용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고, 옥을 갖기 위한 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 오른다. 조직 내부에서도 불거지는 전통과 새로운 사고체계의 갈등, 대대적 공격을 준비하는 마운틴 부족에 맞서 카울 집안은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대부>와 <왕좌의 게임>, <와호장룡>의 매력적인 요소가 골고루 섞인 특별한 이야기가 저마다 허점을 지닌 다채로운 인물들을 통해 흥미롭게 펼쳐진다.

<저자 소개>

폰다 리(Fonda Lee)는 YA 소설 『Zeroboxer』, 『Exo』로 명성을 얻은 캐나다 출신의 작가다. 무술 유단자이자 기업 사업 기획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는 글 쓰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Updates:

JADE CITY
Fonda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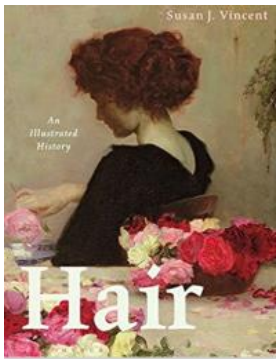
Fonda Lee won the World Fantasy Award for Best Novel this weekend, for her novel JADE CITY (Orbit; November 2017). JADE CITY was also a finalist for the Nebula Award for Best Novel and the Locus Award for Best Fantasy Novel.

The Best Novel award this year was a tie—JADE CITY shared the accolade with THE CHANGELING, by Victor LaValle. Ties are not unusual for this juried award.

JADE CITY's win makes 2018 the first year in history a single publisher has won all three of the biggest US awards for science fiction and fantasy: the Hugo, Nebula, and World Fantasy Awards for Best Novel. The Hugo and Nebula Award for Best Novel were both won this year by N.K. Jemisin's THE STONE SKY.* (No single novel has ever won all three awards.)

Rights to JADE CITY have been licensed in Hungarian/Agave, Polish/Scared Dragon Studio, Russian/Eksmo, Spanish/Insolita, Turkish/Eksik Parca, and Orbit UK joined us in publishing this title in the UK.

NON-FICTION



제목: HAIR
가제: 머리 혹은 머리카락의 역사
저자: Susan Vincent
출판사: Bloomsbury Visual Arts
발행일: 2018년 10월 4일
분량: 256 페이지
장르: 역사

*** "16세기부터 현재까지 머리카락의 힘과 중요성을 풍성한 묘사로 소개한 놀랍고, 재미있고, 많은 지식이 담긴 책" - 영국 왕립예술학교, 새라 청(Sarah Cheang)**
*** "머리카락을 상품, 선물, 개인의 좋은 추억, 때로는 동물의 관점에서 꼼꼼하게 기록하며 관리법부터 관리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털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등이 포괄된 500년의 유럽 헤어의 역사를 접할 수 있다" - 『Encyclopedia of World Dress and Fashion』 편집장 조앤 B. 아이허 (Joanne B. Eicher)**

얼마 전 서울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학교 재량으로 중고생의 두발을 자유화한다고 발표하면서 지금까지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염색, 파마까지 개인의 취향대로 머리카락을 마음껏 손질하고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권 존중 차원에서 진작에 했어야 하는 일이라는 의견과 과도한 정책이라는 상반된 의견을 가만히 듣다 보면, 문득 '대체 헤어스타일이 뭐길래?'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무수한 종교가 머리 모양과 길이를 정해놓고 따르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속신앙에서 굿을 하거나 소원을 빌 때 특정인의 머리카락을 조금 잘라서 태우는 것처럼 먼 옛날부터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특별한 의식을 치를 때 머리카락과 관련된 독특한 과정이 포함된 경우가 많은 건 어떤 의미일까?

공통분모는 바로 머리카락이 그저 신체의 여러 부분 중 하나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 즉 정체성을 대표한다고 보는 인식이다. 나이가 들어 머리카락이 자연스레 희끗희끗해지면 그냥 두는 사람보다 다시 진한 색으로 염색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이유도 내가 생각하는 나와 거울에 비친, 머리가 하얗게 센 사람 사이에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이고, 암에 걸려 화학요법을 받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숭숭 빠지면 병이나 힘들고 불행한 상황 자체보다 머리가 빠지는 그 현상에 더 큰 충격을 받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시대와 문화에 따른 헤어스타일과 머리카락의 색깔, 머리 장식 등의 변화는 개개인을 넘어 특정 시대와 문화를 사는 사람들의 삶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매개체가 아닐까? 저자는 바로 이와 같은 가정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머리카락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해석되었는지, 건강과 위생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관리되었으며 사회적, 정치적인 변화와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본다.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대표하는 상징, 소문과 비밀, 성적 매력을 드러내거나 감추는 수단으로서 머리카락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들과 함께 예술, 영화, 신문, 이미지, 텍스트 속에 다채로운 형태로 담긴 머리카락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소개한다.

책은 총 여섯 장으로 나뉘며 첫 장에서는 머리 손질법의 변천사와 그와 관련된 물질문화를 통해 허용 범위와 허용되지 않는 범위가 어떤 기준으로 나뉘었는지 다각도로 조명한다. 시대별로 사용된 머리 손질 제품과 일관된 형태를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 개발된 기발한 아이디어, 위생 개념이 뒤늦게 결합되면서 생겨난 변화 등 흥미로운 역사적 사례들이 함께 제시된다. 2장에서는 특정한 헤어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유독 애쓴 인물들과 이들의 머리를 매만지고 손보는 전문가의 시대별 위상, 기능을 설명한다. 이어 3장부터 5장까지는 사례 연구가 등장한다.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얼굴과 몸에 난 털이 성별, 국가, 시대에 따라 어떤 의미로 해석되었고 이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기 위해 어떤 강압이나 노력이 이루어졌는지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6장에서는 머리 길이가 정치적, 사회적인 평형을 깨뜨리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세계사에 남은 소요 사태와 전쟁, 반란, 폭동과 그 중심에 선 사람들의 머리 길이를 통해 살펴본다.

현재 우리가 특정한 헤어스타일이나 몸에 난 털에 부여하는 의미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 기준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크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그림, 사진, 역사적 기록, 과학적인 탐구 결과 등 광범위한 자료와 함께 제시한 생동감 넘치는 역사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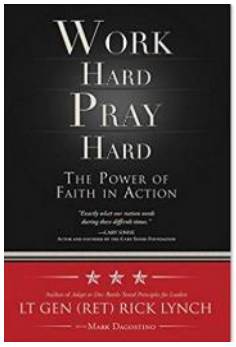
<목차>

머리말. 머리카락의 중요성
1장. 머리 손질
2장. 하인부터 스타일리스트까지
3장. 털을 없애는 기술
4장. 털 많은 사람의 실상
5장. 외모의 정치학
6장. 사회적 해결과제: 유서 깊은 문제, 그리고 최근의 문제
결론. 역사와 머리카락의 이야기

<저자 소개>

수전 빈센트(Susan Vincent)는 영국 요크대학교 르네상스·근세연구센터 소속 연구원이다.

제목 : WORK HARD, PRAY HARD
가제 : 노력하고 기도하라
저자 : Rick Lynch
출판사: Savio Republic
발행일: 2017년 4월 4일
분량 : 192 페이지
장르 : 종교/에세이



* **"저자의 개인적인 사연과 역사, 성경의 예시를 통해, 신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독자에게 통찰을 제공한다." - 배우 게리 시나이즈(Gary Sinise)**
*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미국 전체에 휴머니즘, 내적 평화, 믿음을 향한 여정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책" - 전 미 국회의원 체트 에드워즈(Chet Edwards)**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신을 믿는 주된 이유는 힘들고 고된 순간에 언제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의심 없이 따를 수 있는 가르침, 뿌연 안개 속을 걸어가듯 불확실한 하루하루에 빛이 되어줄 존재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 생활을 한다. 하지만 그저 신과 그 말씀을 믿는 것만으로 모두가 절실히 바라는 평온함과 안정감을 얻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대다수가 잘 알고 있다. 왜 누군가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고 다른 누군가는 신을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믿음을 의심할까? 무엇이 믿음의 깊이를 좌우하고, 궁극적으로 신앙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얻는 사람과 그러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30년 이상 군인으로 살면서 숱한 죽음을 목격하고 자신은 몰론 사랑하는 이들을 생과 사를 오가는 현장에 내몰려야 했던 저자는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마다 버틸 수 있게 해준 종교의 힘을 이 책에서 이야기한다. 그저 믿는 것만으로 바라는 모든 것을 신이 내려주기를 바란다면 가늠할 수 없는 신의 능력과 힘을 제대로 느끼지도, 얻을 수도 없으며 굳건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한 의식적이고 쉼 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핵심이다. 전장에서 보낸 긴 시간들,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부딪히고 해결해야 했던 개인적인 고충들을 포함한 저자의 인생과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 그리고 역사로 전해 내려오는 사건들을 토대로, 신앙의 본질과 개인의 삶에 그 영향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신은 희망이 필요한 자에게는 희망을, 평화가 필요한 자에게는 평화를, 그리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야 하는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는 용기를 주기 위해 늘 그 자리에 있지만 신을 믿는 마음이 실제 현실에 반영되고, 삶 전체는 물론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스며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자는 직업상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지휘관으로 살면서 깨달은 리더십 개선 방법을 고민하다, 사실 꼭 장군이나 큰 조직의 대표, 집안의 가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리더이고, 때로는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이 되고, 멘토로 살아간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설명한다. 이에 저자는 리더십이라는 개념은 공식적인 '리더'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와 같이 변화무쌍하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알고 습득해야 할 기술이라고 보고, 리더십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자 강력한 동력이 된 신앙심을 어떻게 활용하고 강화시켜 그 기술을 익힐 수 있는지 이 책에서 설명한다. 절대 이겨내지 못할 상황을 기적처럼 이겨낸 사람들의 놀라운 사례와 저자가 신을 원망하고 의심했던 시간에 고뇌하며 결국 찾아낸 해답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이야기들이 페이지마다 가득하다. 군인으로, 아버지로, 남편으로, 그리고 친구로 살면서 종교를 통해 깨달은 귀중한 교훈을 공유하고 스스로 깨닫지 못할 뿐 신이 부여하여 모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타고난 리더십을 발휘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지침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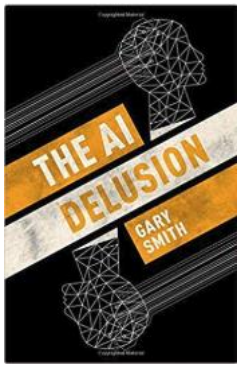
<목차>

머리말. 그토록 위대한 믿음
1장. 내면의 평화를 찾아
2장. 한계를 넘어
3장. 용기를 명령하다
4장. 겸손해지는 것
5장. 죄 많은 나를 넘어 성장하려면
6장. 영적으로 건강해질 것
7장. 신을 향한 믿음

<저자 소개>

릭 린치(Rick Lynch)는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미군으로 총 6만 5,000여 명의 군인을 이끌다가 장군으로 은퇴했다. 9/11 테러 이후 이라크에서 펼쳐진 여러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코소보에서도 복무했다. 은퇴 후 강연자, 저술가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Adapt or Die』가 있다.

제목 : THE AI DELUSION
가제 : AI에 관한 착각
저자 : Gary Smith
출판사: Oxford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9년 10월 1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과학/기술



* "연산력이 증대되고 데이터가 많아진다고 해서 지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우리 인간이 보유한 지적 능력에 좀 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재미 있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책" - 데이터 과학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에릭 엥버그(Eric Engberg)
* "빅데이터가 중대한 결정에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음을 우리가 인지할 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흥미롭게 알려준다" - 콜롬비아 대학교 응용통계센터장, 앤드류 겔먼(Andrew Gelman)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같은 전략으로 정반대의 결과를 얻은 두 사람이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버락 오바마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바람에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지 못한 힐러리 클린턴이다. '혁명'이라 불릴 만큼 엄청난 속도로 광범위하게 발전 중인 컴퓨터 기술은 인류의 생활방식을 통째로 바꾼 산업혁명보다도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간은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고, 동시에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전혀 생각지 못한 일까지 척척 해내는 시대에 빅데이터를 포함한 컴퓨터 기술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무서운 기술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럼에도 왜 미국의 두 대통령은 전혀 다른 결과를 얻었을까? 같은 성과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결과는 나와야 이치에 맞을 것 같은데 왜 같은 기술이 아예 성패를 갈라버린 중심축이 되었을까? 저자는 기술이 전례 없이 발전한다고 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다고 맹신하거나 인간의 한계를 무조건 뛰어넘을 수 있다고 착각할 때 바로 그와 같은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컴퓨터는 인간보다 똑똑하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물론 인류의 삶을 대폭 변화시킬 발견도 가능해진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지만, 저자는 이 같은 기술 발전이 우리의 일생을 크게 변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 변화가 반드시 '더 나은' 방향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한다. 클린턴의 대선 실패처럼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이미 드러난 기술의 한계를 다양한 예시를 통해 보여주고 인간이 의사결정의 중심에서 빠지고 그 자리를 기계와 기술이 대신할 때 어떤 위험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한다.

버락 오바마가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 캠프에서는 유권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나이와 성별, 인종, 종교는 물론 페이스북 친구, 구독 중인 잡지 등 수백 가지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다양한 루트로 수집하고 이를 전화나 방문 조사로 얻은 표심과 결합하여 세밀하게 분석했다.

이렇게 데이터를 샅샅이 쪼개고 나눠서 분석한 결과로 만든 모형은 총기 소유자가 많은 지역에는 총기규제 정책 이야기를 되도록 꺼내지 않는 등 개인 맞춤형 선거 전략을 수립하는 바탕이 되었고 오바마는 7억 8,000만 달러라는 역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선거 지원금을 끌어 모은 것은 물론 경쟁자보다 두 배 더 많은 표를 얻으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8년 뒤, 힐러리 클린턴의 선거 캠프는 수학자와 통계학자 60명을 고용하고 '에이다'로 명명되어 극비리에 운영된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가동하고도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단계부터 삐걱대기 시작했다. 일흔 살이 넘은 경쟁자 버니 샌더스와 대다수가 코웃음치고 비웃지만 또 다른 대다수가 귀를 기울인 도널드 트럼프가 가진 것, 사람들의 마음에 '달라질 수 있다'는 불씨를 심고 그것이 거대한 불길이 되게끔 이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저 통계결과와 과거 빅데이터가 거둔 성과를 근거로 예측되는 방향만 바라본 클린턴은 수십 년을 선거운동에 참여한 노련한 전문가들의 예리한 견해가 데이터 분석 결과와 엇나갈 경우 무조건 후자를 택하는 큰 실수를 범했다.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는 기계를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들리지만, 저자는 실제로 컴퓨터가 인간보다 더 똑똑해지는 것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컴퓨터에게 맡겨버리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근거 없는 두려움과 기술에 대한 과신, 잘못된 믿음의 폐해를 조목조목 설명한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서다.

<목차>

머리말
1. 지적 행위일까, 그저 복종하는 것일까?
2. 생각 없이 하는 일
3. 맥락 없는 상징
4. 나쁜 데이터
5. 무작위 속의 패턴
6. 데이터를 아주 오랫동안 고문하면
7. 적나라한 현실
8. 새 포대에 담긴 헌 술
9. 아스피린 두 알로 해결해라
10. 시장 선점 I / 11. 시장 선점 II
12.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 결론

<저자 소개>

게리 스미스(Gary Smith)는 예일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동 대학에서 부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현재 미국 포모다 대학 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80여 편의 학술논문과 『Standard Deviations』, 『Money Machine』 등 열두 권의 저서를 발표했다.

제목 : THE EUROPEANS
가제 : 유럽인
저자 : Orlando Figes
출판사: Penguin UK
발행일: 2019년 가을
분량 : 623 페이지
장르 : 역사

*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책. 오늘날 러시아에서 의무적인 필독서가 되어야 한다" – 역사가 앤토니 비버(Antony Beevor), 전작 『JUST SEND ME WORD』에 관한 서평
* "절대 잊혀지지 않을 책 중하나. 이 책을 흐느끼지 않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 소설가 사이먼 세벡 몬테피오리(Simon Sebag Montefiore), 전작 『JUST SEND ME WORD』에 관한 서평

유럽을 떠올리면 자동으로 머릿속에 그려지는 풍경과 예술 작품들이 있다. 아시아, 북미, 남미도 모두 나름의 독특한 개성이 드러나지만 개별 국가가 아닌 대륙 전체가 보편적으로 공통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곳은 아마도 유럽 대륙이 유일할 것이다. 현재 우리가 보는 유럽의 독특한 문화는 언제부터 형성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자리를 잡았을까? 저명한 역사가인 저자는 유럽의 '문화 세계화'가 태동한 19세기로 독자를 안내하여 그 흥미진진한 과정을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인다. 철로가 각국을 연결하는 동맥이 되어 마차로 며칠씩 걸리던 거리를 하루 만에, 혹은 단 몇 시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통신 기술도 등장한 19세기는 유럽이 세계 시장에 진출한 시기이자 그림과 음악, 문학 등 예술 분야에서 유럽만의 독특한 분위기와 기준이 발달한 시기였다. 저자는 '유럽다운 것'으로 통칭할 수 있는 이러한 특색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유럽 특유의 가치와 예술적인 스타일, 감성이 오늘날까지 전해질 정도로 단단히 뿌리를 내린 과정을 마치 소설처럼 두 인물을 중심으로 들려준다. 바로 러시아 소설가 이반 투르게네프와 그의 연인 폴랭 비아르도(Pauline Viardot)가 그 주인공들로, 이 책에서 19세기 유럽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

저자가 두 사람을 19세기 유럽 문화사의 중심에 세운 이유는 이들이 당시 유럽 문학계와 음악계, 미술계에서 활동하던 주요 인물들을 두루 사귀고 절친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소비에트에서 무려 열여섯 권으로 된 책으로 펴낼 만큼 방대한 투르게네프와 지인들간의 서신에는 도스토예프스키와 톨스토이, 플로베르, 에밀 졸라, 모파상, 헨리 제임스 등 새로운 문화를 이끈 주역들과 당시 유럽 지식인들의 생각과 목표,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저자는 문화를 확산시킨 중심지가 된 유럽에 다양한 국경이 존재했지만 경계 없는 흐름과 상호작용을 통해 물리적인 국경을 넘어서서 유럽의 문화가 새롭게 구축된 과정을 철도, 통신, 석판인쇄술, 점점 증대되던 시장 권력의 가치 등 기술적, 사회적인 변화, 그리고 19세기 자본주의의 영향과 결합시켜 다면적으로 분석한다. 경제적 가치가 달라지면서 예술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

식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고, 이것이 예술계 자체는 물론 전 유럽의 문화에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켰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 출판된 책이 여러 나라 사람들 손에 들어가고, 특정 국가에서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 한 점이 수도 없이 복제되어 온 유럽의 가정집이며 공공 건물의 벽에 걸리고, 똑같은 음악이 집에서나 유럽 여러 콘서트 홀에서 울려 퍼지고, 동일한 오페라가 주요 극장마다 상연된 현상, 이를 통해 우리가 '유럽풍'으로 인식하고 전 세계가 '고급 문화'로 인정하는 특징적인 문화가 된 과정을 두 명의 매력적인 남녀 예술가를 중심으로 정리한 독특한 역사서다. 문화적인 정체성은 반드시 고립되어 독자적인 힘으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중첩되는 부분을 감수하면서 보다 개방적인 방향을 택할 때 오히려 특유의 매력이 강화되고, 정체성은 더욱 선명해진다는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된다.

<목차>

전문 / 통화 표기에 관하여 / 약어
서문 / 머리말
1. 1843년 유럽
2. 무대 위에 오른 혁명
3.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
4. 변화하는 유럽인들
5. 유럽의 연극
6. 음악 없는 땅
7. 경계 없는 문화
8. 죽음, 그리고 규범
맺음말

<저자 소개>

올랜도 피지스(Orlando Figes)는 런던대학교 역사 교수로 트리니티 칼리지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친 경력이 있다. W.H. 스미스(W.H. Smith) 문학상, LA 타임스 도서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Natasha's Dance: A Cultural History of Russia』, 『The Whisperers: Private life in Stalin's Russia』, 『Crimea: the Last Crusade』 등 러시아 역사에 관한 책을 여러 편 발표했다.

제목 : EQUALITY FOR WOMEN = PROSPERITY FOR ALL
가제 : 여성 평등 = 모두의 번영
저자 : Augusto Lopez-Claros, Bahiyyih Nakhjavani
출판사: St. Martin's Press
발행일: 2018년 10월 30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경제

* **"탄탄한 연구결과와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두 저자는 성적 불평등이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 엄청난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독자의 마음과 가슴에 호소한다 – UN 특별조사위원, 전 유럽위원회 부의장 모드 드 보어 부키치오(Maud de Boer Buquicchio)**
* **"특정 성별에 치우친 경제와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를 주는 경제를 비교하여 불평등의 엄청난 영향을 증명한 책" – 「북리스트」**

여성이라는 이유로 같은 직장에서 같은 직급으로 일을 하고도 급여가 적거나 한 나라에 사는 똑같은 국민인데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는 것과 같은 성차별 문제는 여전히 수많은 나라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굳이 그래야 하는가?'라며 반문하고 양성평등의 근본적인 당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경제학자와 소설가로 구성된 두 저자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야 할 인권이 성별 차이에 따라 다르게, 또는 극명할 정도로 차이 나게 보장되는 상황에서도 그 심각성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마저도 솔깃해할 만한 정보를 제시한다. 바로 여성이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그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가 악화된다는 사실이다. 세계은행과 세계경제포럼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로 활동한 저자와 성차별 문제를 다양한 글로 표현해온 저자는 여성의 건강과 교육수준, 법적인 보호, 고용이 남성과 평등하게 지켜지지 않을 경우 나라 전체에 부과되는 부담은 생각보다 훨씬 막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이라는 귀중한 인적 자본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낭비이며, 이를 인지한다면 윤리적, 정치적인 이유를 떠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여성의 평등이 보장되어야만 한다고 설명한다.

두 저자가 이 같은 주장을 펼친 배경에는 세계은행이 실시한 '여성과 비즈니스, 법' 프로젝트가 있다. 전 세계 173개국을 대상으로 47항으로 이루어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여성의 지위와 권리가 해당 국가의 경제 수준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분석한 이 사업에서는 '여성도 혼인유무를 떠나서 남성과 동일한 방식으로 여권을 만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나 '여성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성추행이 법적으로 처벌 받는가?'와 같은 질문들이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 여성이 누리는 자유의 정도는 그 나라가 누리는 번영 수준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남성 인구가 여성 100명 당 101.6 명으로 더 많은 시대에 여성에게 휘두른 폭력은 생산성 약화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정치적으로 거대한 불협화음을 만들어 낸다. 이는 곧 고질적인 빈곤과 폭력의 덫에서 빠져나가기 힘든 벽이 되어 사회구성원의 좌절감이 높아지고, 사회가 불안정해

지고 문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여성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할 때 경제가 흔들리고 민주주의까지 약화될 뿐만 아니라 사회의 큰 부분이 극도로 약화된다는 이 연구결과는 성차별 해소가 여성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자유와 행복, 기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을 잘 보여준다.

두 저자는 미국의 경우 주 정부가 지원하는 연금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여성이 몰살되다시피 하는 현 상황이 바뀌어야 하며, 남녀평등이 실현될 때 실제로 국가 경제에 발생할 수 있는 유익한 영향을 상세히 설명한다. 지금도 사회에서 눈에 띄지 않는 그림자에만 머물며 외부와 자유롭게 접촉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성들의 안타까운 사례와 더불어 가정폭력이 어떻게 정치적인 불안정성으로 이어지는지, 여성 개개인을 향상 성 차별은 당사자는 물론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한다. 여성의 억압이 경제 침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풍성한 예시와 함께 밝힌 특별한 경제서다.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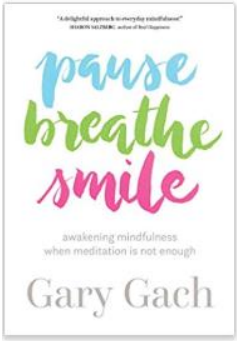
머리말
1장. 사람 문제
2장. 폭력 바이러스
3장. 여성과 일
4장. 문화적인 의문
5장. 권리, 그리고 잘못된 현실
6장. 교육에서 시작되는 평등
7장. 불평등의 대가

<저자 소개>

아우구스토 로페즈 클라로스(Augusto Lopez-Claros)는 조지타운 대학교 외교학부의 선임연구원으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은행그룹의 글로벌 예측단 단장을 맡았다.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수학적 통계학을 공부한 뒤 듀크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칠레 대학교에서 경제학 교수로 일한 경력이 있다.

바히니 나크자바니(Bahiyyih Nakhjavani)는 우간다에서 자란 이란인 작가로 현재 미국 문학을 가르치면서 글을 쓰고 있다. 저서로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소설 『The Saddlebag』 등이 있다.

제목 : PAUSE, BREATHE, SMILE
가제 : 멈추고 호흡하고 웃어라
저자 : Gary Gach
출판사: Sounds True
발행일: 2018년 9월 1일
분량 : 216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유머러스한 동시에 마음을 열게 하는 아주 유용한 정보가 극히 이해하기 쉽게 제시된 책. 어린아이처럼 두 눈을 빛내는 불교 지도자의 지혜를 나누는 듯한 기분이 들 것이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Buddha's Brain』의 저자 릭 핸슨
" 삶에 집중하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는 지혜와 실천 방법, 친절함을 선사하는 책" - 『No Time Like the Present』의 저자 잭 콘필드

명상을 하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육체적인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쉽지 않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과연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올바른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굳이 돈과 시간을 들여서 배우기엔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베트남의 승려이자 시인, 평화운동가로 전 세계의 영적 스승으로 불리는 틱낫한 스님의 가르침을 여러 권의 책으로 알리는 일에 매진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금방 이해하고 따라 해볼 수 있는 명상법을 알려준다. 기술적인 방법보다 명상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 명상의 각 요소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와 함께 제시된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현실에 정신을 오롯이 집중하고 나 자신을 둘러싼 주변과 나의 상호작용을 또렷하게 인식하는 것, 이를 통해 잡음처럼 머릿속에 들끓던 상념을 가라앉히고 어디에,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조용히 이끌어주는 명상의 힘과 실천 방법을 부담 없이 배울 수 있다.

저자는 50년 이상 수련하고 연구한 마음챙김 명상의 근본 원리를 세 가지로 정리한다. 그 첫 번째인 '멈춤'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그 모든 행위가 나아갈 '방향'을 스스로 정하는 단계이다. 마음챙김의 도덕적인 측면에 해당되는 멈춤 단계에서는 과거나 미래에 부질없이 붙들리지 않고 내게 이로운 방향으로, 더 건강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의식적으로 다짐한다. 두 번째 원리인 호흡은 몸과 마음, 정신을 하나로 묶어서 모든 순간을 명상의 기회로 만드는 과정이다. 호흡하되 인위적으로 호흡을 바꾸지는 않고 미처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던 상태에서 벗어나 코로 호흡하고 코로 내쉬는 숨에 가만히 집중하는 것이 이 단계를 실천하는 방법이다. 처음에는 물리적인 공기의 이동만 느끼지만 천천히 호흡을 인식할수록 감정적인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현재 내가 서 있는 위치와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미소 짓기이다. 저자는 모나리자나 부처님의 입가에 슬며시

떠오른 미소를 따라 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앞 단계에서 호흡하는 동안 떠오른 생각들, 느낀 것들을 되새기고 스스로를 칭찬한다는 생각으로 입 꼬리를 움직여 미소 지으면 어느새 호흡이 더욱 자연스러워지고 편안해지는 것이 느껴진다. 특히 미소와 함께 내뱉는 숨은 마음을 누르던 무거운 생각과 버리고 싶었던 마음 속의 무언가를 홀가분하게 털어내는 신기한 기능도 수행한다. 이로써 우리는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관점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통찰을 키울 수 있다. 말이나 글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지혜는 이 작은 미소와 함께 찾아온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이처럼 아주 간단한 세 가지 단계에 집중하면 깨우침이라는 우리 내면의 씨앗에 신선한 물을 듬뿍 주는 효과가 나타나고 반복하다 보면 충만함과 마음의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다. 치유를 위해, 혹은 변화를 위해 마음챙김 명상을 활용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만한 책이다.

<목차>

머리말
- 마음챙김이란 무엇일까?
- 세 가지 요소

멈추기
- 규칙과 습득, 성장, 자유
- 마음챙김의 종소리
- 도덕적인 관점
- 의향이란 무엇일까? 등 총 11장과 Q&A로 구성

호흡
- 명상은 무엇일까?
- 호흡을 완전하게 인지하는 것
- 늘 우리 곁에 함께하는 것
- 마음에 집중하는 몸/ 체화된 마음 등 총 11장과 Q&A로 구성

미소
웃어라, 인생이 항상 마음대로 되지는 않으니
지혜란 무엇일까?
현실의 세 가지 특징
흐름 등 총 9장과 Q&A로 구성

<저자 소개>

게리 가크(Gary Gach)는 작가이자 명상가, 배우, 서점 직원, 병원 행정직원, 교사 등 다양한 일을 하면서 살았다. 『The Complete Idiot's Guide to Buddhism』 등 틱낫한 스님의 가르침을 담은 저서를 여덟 권 저술했다. 고은 시인의 시를 영어로 번역했다.